

고 국 의 경 제 특 구 개 발 에 더 많 은 도 움 을

◇ 박 경 애 카나 다 브리 티쉬 컬 럼 비 아 대 학

얼마전 기자는 공화국을 방문한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교수인 박경애동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지난 기간 캐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을 통하여 공화국과 학술교류를 활발히 벌여왔는데 이번엔 어떤 협력사업들을 진행하였는지 알고싶다.

박 경 애: 나는 이번엔 고국을 방문하여 여러 경제특구들에 대한 현지참관과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캐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의 주관하에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오고있는 지식교류사업의 일환으로서 조선경제개발협회의 협력밑에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경제특구개발에 관한 토론회의 계속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10월에 있는 평양 국제토론회에서는 여러 나라의 경제전문가들과 고국의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하여 경제특구에 관한 계획 작성, 다른 나라들에서의 경험과 성공사례 등 경제개발, 관리운영과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의견을 나누었다.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토론회는 국제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토론회를 마치고 돌아가자 미국의 신문사들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온다. 매일과 같이 전화가 걸려온다 하면서 끊었다. AP통신사의 평양토론회 관련기사가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신문들과 인터넷에 실리자 며칠사이에 가입자수가 수천만명으로 늘어

났다. 그만큼 고국에서의 경제특구개발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비상히 크다.

지난해 10월 평양토론회이후 고국에서 8개의 도에 13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들을 설치하였는데 나는 이번엔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전문가들, 조선경제개발협회일꾼들과 함께 라진-선



봉경제개발지구,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를 비롯하여 남포시, 원산시, 마식령스키장, 신평, 금강산에 이르는 경제개발구들을 현지에서 직접 살펴보았다.

기 자: 경제개발지구들에 대한 현지참관에 이어 5월 2일 평양에서 국제토론회를 가지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었는가?

박 경 애: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에 있는 국제토론회와 달리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함께 각 도들의 경제개발현장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도들에서 세운 개발 계획들에 대한 의견도 주고 경험도 나누는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른 도들에서 온 전문가들도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청진경제개발구와 어랑농업개발구의 개발계획과 자기 도들의 개발

계획을 비교해보며 우열함을 찾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에서의 투자방식들인 BOT(건설운영양도)방식, BOO(건설운영소유)방식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경제특구개발과 관련한 학술적 및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기 자: 경제개발구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소감은?

박 경 애: 많은것을 보고 느꼈다. 무엇보다 고국의 경치가 아름답고 자연보존상태가 대단히 좋는데 탄복하였다. 외국어의 전문가들도 신평지구를 돌아보고 이렇게 경치가 뛰어난 곳도 있는가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곳에 관광개발지구를 꾸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을것이다.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UBC)의 정치학교수, 박사인 박경애동포는 조선경제전문가로서 오래동안 캐나다와 조선과의 민간교류사업에 공헌해왔다.

현재 박경애동포는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의 조선문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캐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KPP) 소장을 맡고있다.

캐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은 박경애동포에 의해 2011년초에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에 설립되었다.

조선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인제양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캐나다-조

특히 마식령스키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나라의 호텔들을 많이 보았지만 마식령호텔은 외국의 이름난 호텔들과 조금도 작지않는다. 더우기 마식령스키장은 산과 바다가 가까이 있어 관광지로서 제격이다.

나는 거의 해마다 고국에 오곤 하는데 올 때마다 감탄하곤 한다. 불과 한해사이에 창전거리와 같은 웅근 하나의 거리가 통째로 일떠서니 한해전에 왔던 곳도 알아볼지 못할 정도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국에 대해 물어볼 때면 《매일 바뀐다.》고 말해주곤 한다.

기 자: 공화국의 경제발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경 애: 한마디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방금 말하였지만 한해가 다르게 비약하

는 고국의 발전모습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물론 애로와 난관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고국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고국에서의 경제특구개발사업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내달리는것이 아닌가.

6개월사이에 경제특구와 관련한 국제회의를 두번이나 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 협력사업을 한두번 해보고는 손을 떼곤 하였는데 고국과의 경제개발협력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다.

기 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선생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로 만나 의미있고 효과적인 견교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선과의 지식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엔 진행된 공화국의 경제특구들에 대한 현지참관과 토론회는 캐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경제특구들에 대한 현지참관과 토론회는 캐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경제특구들에 대한 현지참관과 토론회는 캐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며 친혈육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 조국인민들에게는 체질화된 일상생활로 되고있는것이다.

누군가 사랑은 바치는것이라 했는가.

비록 화려한 웃을 입고 눈부신 치장을 하지 않았어도, 진수성찬으로 배가 부르지도 않아도 사랑과 정으로 파스하고 포근한 조국이야말로 참인권이 꽃피는 나라가 아니던가.

하지만 생기도 같고 언어도 같으며 피츨도 같고 한지 맥으로 잇닿은 저 남조선에서는 너무나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있으니 내가 태를 묻은 남조선이 아닌 공화국을 조국이라 부름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인간위주의 내 조국과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남조선사회, 《세월》호참사는 조선반도의 너무나 판이한 두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 고있다.

재중동포 리 지 혜

연구내에서 하염없이 누울만...

이상이었다. 이날 이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던 온갖 어지러운 풍문, 랑설과는 너무나 판판이었던것이다. 그야말로 첫눈에 반하고 대

《정작 헤어지

자니 섭섭합니

다.》《이역에 가서

도 조국을 잊지 않

기 바랍니다.》

평양-단동행 국

제철차를 타기 위

해 나온 사람들

과 바배주는 사람

들로 역혼은 분비

었다.

잡은 손을 놓지

못하며 석별의 정

을 금치 못해하

는 사람들가운데

는 제29차 4월의

봄 친선에출죽전

에 참가하였던 재

중조선인에출단성

원들도 있었다.

그들속에서 연신

눈굽을 흘리고있

는 두 녀성이 우

리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애 그렇가? 의

문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김연주

재중조선인에출단

단장이 그 사건을

들려주었다. 그들

두 녀성은 이번엔

처음으로 우거진

방문했다고 한다.

이역망에서 태어

나 난생처음 배아

본 조국은 그들에

게 있어서 놀라운

경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물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건

설해가는 사람들,

제국주의

강적이 덤벼들어

도 눈설 하

번엔 정이 흠뻑 들었다.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상하고 문명화것이 마음에 꼭 들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오가는 사람들마다 랑만과 활력에 넘쳐있는 모습도 깊은 인상을 자아냈다.

비록 사치하지 않아도 봄 계절에 맞게 고상하면서은 아름답고 깨끗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도덕과 레의범절이 밝고 인간미가 넘치는 정결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다 좋아질 희망한 레일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국인민들이야말로 참으로 문명하고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속으로 탄복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공기오염도가 너무나 짙어 마스크를 끼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 해외에서와 달리 조국의 공기는 하도 맑고 청신하여 마음껏 심호흡을 하려 다녔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달리 길가에 떨어진 휴지조각 하나 볼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특

음방조 우거진 아름다운 평양시내를 거니느라니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조국찬가》의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는 그들이다.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물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가는 사람들, 제국주의 강적이 덤벼들어

도 눈설 하

번엔 정이 흠뻑 들었다.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상하고 문명화것이 마음에 꼭 들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오가는 사람들마다 랑만과 활력에 넘쳐있는 모습도 깊은 인상을 자아냈다.

비록 사치하지 않아도 봄 계절에 맞게 고상하면서은 아름답고 깨끗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도덕과 레의범절이 밝고 인간미가 넘치는 정결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다 좋아질 희망한 레일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국인민들이야말로 참으로 문명하고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속으로 탄복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공기오염도가 너무나 짙어 마스크를 끼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 해외에서와 달리 조국의 공기는 하도 맑고 청신하여 마음껏 심호흡을 하려 다녔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달리 길가에 떨어진 휴지조각 하나 볼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특

음방조 우거진 아름다운 평양시내를 거니느라니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조국찬가》의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는 그들이다.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물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가는 사람들, 제국주의 강적이 덤벼들어

도 눈설 하

번엔 정이 흠뻑 들었다.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상하고 문명화것이 마음에 꼭 들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오가는 사람들마다 랑만과 활력에 넘쳐있는 모습도 깊은 인상을 자아냈다.

비록 사치하지 않아도 봄 계절에 맞게 고상하면서은 아름답고 깨끗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도덕과 레의범절이 밝고 인간미가 넘치는 정결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다 좋아질 희망한 레일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국인민들이야말로 참으로 문명하고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속으로 탄복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공기오염도가 너무나 짙어 마스크를 끼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 해외에서와 달리 조국의 공기는 하도 맑고 청신하여 마음껏 심호흡을 하려 다녔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달리 길가에 떨어진 휴지조각 하나 볼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특

음방조 우거진 아름다운 평양시내를 거니느라니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조국찬가》의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는 그들이다.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물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가는 사람들, 제국주의 강적이 덤벼들어

도 눈설 하

번엔 정이 흠뻑 들었다.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상하고 문명화것이 마음에 꼭 들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오가는 사람들마다 랑만과 활력에 넘쳐있는 모습도 깊은 인상을 자아냈다.

비록 사치하지 않아도 봄 계절에 맞게 고상하면서은 아름답고 깨끗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도덕과 레의범절이 밝고 인간미가 넘치는 정결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다 좋아질 희망한 레일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국인민들이야말로 참으로 문명하고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속으로 탄복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공기오염도가 너무나 짙어 마스크를 끼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 해외에서와 달리 조국의 공기는 하도 맑고 청신하여 마음껏 심호흡을 하려 다녔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달리 길가에 떨어진 휴지조각 하나 볼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특

음방조 우거진 아름다운 평양시내를 거니느라니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조국찬가》의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는 그들이다.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물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가는 사람들, 제국주의 강적이 덤벼들어

도 눈설 하

번엔 정이 흠뻑 들었다.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상하고 문명화것이 마음에 꼭 들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오가는 사람들마다 랑만과 활력에 넘쳐있는 모습도 깊은 인상을 자아냈다.

비록 사치하지 않아도 봄 계절에 맞게 고상하면서은 아름답고 깨끗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도덕과 레의범절이 밝고 인간미가 넘치는 정결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다 좋아질 희망한 레일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국인민들이야말로 참으로 문명하고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속으로 탄복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공기오염도가 너무나 짙어 마스크를 끼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 해외에서와 달리 조국의 공기는 하도 맑고 청신하여 마음껏 심호흡을 하려 다녔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달리 길가에 떨어진 휴지조각 하나 볼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특

음방조 우거진 아름다운 평양시내를 거니느라니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조국찬가》의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는 그들이다.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물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가는 사람들, 제국주의 강적이 덤벼들어

도 눈설 하

번엔 정이 흠뻑 들었다.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상하고 문명화것이 마음에 꼭 들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오가는 사람들마다 랑만과 활력에 넘쳐있는 모습도 깊은 인상을 자아냈다.

비록 사치하지 않아도 봄 계절에 맞게 고상하면서은 아름답고 깨끗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도덕과 레의범절이 밝고 인간미가 넘치는 정결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다 좋아질 희망한 레일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국인민들이야말로 참으로 문명하고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속으로 탄복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공기오염도가 너무나 짙어 마스크를 끼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 해외에서와 달리 조국의 공기는 하도 맑고 청신하여 마음껏 심호흡을 하려 다녔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달리 길가에 떨어진 휴지조각 하나 볼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특

음방조 우거진 아름다운 평양시내를 거니느라니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조국찬가》의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는 그들이다.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물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가는 사람들, 제국주의 강적이 덤벼들어

도 눈설 하

번엔 정이 흠뻑 들었다.

나 까딱하지 않고 제 할바를 다 하고 제 할 말을 다 하는 자주정신이 강한 이런 나라를 그 어디서 본적이 없었던가.

아, 그래서 이역에 사는 동료들마다 내 조국을 위대한 조국, 어머니꼴이라 부르며 그토록 궁지에 넘쳐 따르고있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행복하면 시간가는줄 모른다고 하면 볼수록 신비로운 나날속에 방풍기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였다. 막상 떠나게 된 때에야 이들은 머뭇거리는 사이에 처음으로 온 조국에 자기들이 너무도 깊은 정이 들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아침엔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다지만 나서 처음으로 알게 된 한없이 귀중한 조국의 품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만 샘솟아올랐던것이다....

헤어지고싶지 않은 정다운 사람들, 정녕 떠나고싶지 않은 정결은 이 조국. 그 마음은 곧 조국에 대한 애뜻한 사람의 감정이었다.

봉- 기적소리와 함께 렬차는 평양역구내를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자 렬차에 올라서도 창문밖만 내다보며 연신 눈굽을 흘리던 그들은 북받치는 오열을 가까스로 누르며 두손으로 창문유리를 마구 두들었다. 순간도 떨어지 못할 엄마의 품을 떠나가는 아기들처럼...

본사기자 홍범식

제 16 차 국내 외 동 포 들 의 평 양 의 학 과 학 토 론 회 진 행

제16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가 5일 대동강의교단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김형훈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보건부문 일꾼들, 과학자,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김대식 제일본조선인의학협회 부회장, 박기범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의학자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형훈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변혁을 이룩하고있는 조국의 눈부신 현실은 해외동포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조국의 통일변명에 이바지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의 녀성건강관리제도》라는 제목의 강기가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형성부전구

개보존형탈구정복술에 의한 어린이선천성대퇴관절탈구의 수술적치료에 대한 임상적연구》, 《자원부족 조건에서 만성B형간염관리》, 《침단방사선의학상》 등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토론자들은 논문들을 통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질병예방과 치료에 도입하는 과정에 이룩된 선진적인 연구성과와 경험들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었다.

본사기자



제 17 차 평 양 불 철 국 제 상 품 전 랑 회 가 진 행 된 다

제17차 평양불철국제상품전람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전람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뉴질랜드, 도이쉴랜드,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오스트랄

리아, 웰남, 이딸리아, 라이, 쿠바, 뽀스가, 중국 대북의 300여개 회사들이 참가하게 된다.

전자, 기계, 금속, 건축, 운수, 식료, 일용, 경공업부문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이 전람회에 출품된다.

전람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공화국에는 《우리 지배인》, 《우리 선생님》, 《우리 인민반장》을 비롯하여 《우리》라고 정답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 부름에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성실한 명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감정이 숨배여있다. 풍치수려한 대성산

친 혈 육 처 럼,

평양시민들과도 대성산기슭의 동천호식당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곳 식당이 사람들이 즐겨찾는 대성산유화장에 위치하고있어서만이 아니다. 중요한것은 동천호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의 가치가 다양하고 맛있을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친절적 또한 이만저만 아니어서 한입 건너 두입 건너 그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곳 동천호식당에 《우리 지배인》으로 불리는 리춘영(61살) 지배인이 있다.

우리는 이곳 식당종업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가 지닌 뜨거운 인간미와 직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에 대해 알수 있었다. 우리의 만난 이곳 식당의 리혜숙부원은 《우리 지배인》동지는 식당종업원들에 대해 손꼽보듯 알고있다. 어느 종업원의 집이 어디에 있

기술에 자리잡고있는 동천호식당의 리춘영지배인도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이다.

자 기 일 처 럼

그 식구의 몇인가 또 가정형편은 어떠한지 예로되는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 나라도 물어주기 위해 애스 고있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연예인이 김예옥로리사가 갖 배치되어왔을 때였다. 그때 리춘영지배인은 그의 가정부터 방문하였다. 식당에 새로 들어오는 종업원들의 가정형편부터 알아보는것이 그가 세운 사업원칙이었다. 가정방문을 하는 과정에 김예옥로리사가 부모를 잃고 형제들끼리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리춘영지배인은 다음날 자기 집에서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가지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종업원들과 함께 집수리에 필요한 기와, 세멘트 등을 가지고가 집도 번듯하게 꾸려 주었다. 그후 그가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에는 식당종

업원들과 함께 결혼식을 차려주고 가장집들도 그쁘히 마련해주었다.

몇해전 작업도중 눈에 심한 상처를 입은 김희옥창고장이 상처자리로 하여 마음에 그들이 질세라 원심을 써주고 년로보장을 받은 리창희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친혈육의 심정으로 도와준것을 비롯하여 남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여기고 따듯

이 돌보아준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와 만난 리순애주방장은 평범한 모리사인 자기가 학위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들려주었다. 언젠가 그가 전국로리경연에 내놓은 요리를 본 사람들이 학위논문감이라고 감탄한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리춘영지배인은 리순애주방장에게 학위논문을 쓸것을 권고하였다. 리



로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리춘영지배인과 요리사들

《통 일 신 보》 가 만 난 사 람 들 대 성 산 이 속 삭 여 주 는 《우 리 지 배 인》

리사로 일한 경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학위문제를 쓰겠는가 하고 하면서 저지하는 자기에게 리춘영지배인은 신심을 안겨주며 논문집필에 필요한 재료의 성분분석을 위해 수백리길을 뛰어나다니

애 국 의

리춘영지배인은 로리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 이악하게 노력하며 종업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로리경연이 진행될 때마다 지배인을 비롯한 식당일꾼들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로리사들과 함께 갖가지 특색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놓는다. 이 나날 속을 첨가하여 분량을 만드는 새로운 요리방법을 개발하여 국가발명권을 받았다.

느맛과 입맛이 좋을뿐 아니라 악리적작용도 나타내는 썩부랑과 썩농마국수는 동천호식당에서만 맛볼수 있는 특식으로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리춘영지배인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요리들을 적극

증 표

찾아내는 사업도 잘하고있다. 계절과 지방별에 따르는 민족로리들을 찾아내기 위해 문헌자료를 보풀이 일도록 번지기도 하고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사람들의 경험을 듣기도 하였다.

사 람 의 보 석 금 반 지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러진 대성산유원지에서 마음껏 휴식을 하고 동천호식당에서 대동강맥주를 비롯한 갖가지 청량음료와 맛있는 음식들을 봉사받으며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느꼈다.》, 《끝없이 베풀어지는 나라의 은혜에 더 많은 석탄증산으로 보답하겠다.》... 이것은 이곳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이

이렇듯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갖가지 특색있는 민족로리들을 많이 만들어 봉사해온 나날 이곳 식당의 로리사들이 전국로리축전들에서 여러차례 1등을 하고 많은 상장과 명료리상 그리고 수십개의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또한 12개의 발명중서, 10개의 과학기술성과등록증, 3개의 창의고안증서들도 받았다. 이 모든것은 리춘영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식당종업원들이 인족음식